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애착 및 우정관계의 역할*

Influences of Victimization by Peers on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The Role of Attachment and Friendship

최 미 경**
Choi, Mi Kyung
도 현 심***
Doh, Hyun S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victimization by peers on self-esteem and the role of father/mother attachment and friendship with a range of 354 2nd-grade junior high school students(169 boys and 185 girls). The subjects reported victimization, father/mother attachment, friendship(number of friends and presence of a best friend), self-esteem and their peers rated victimization, too. The result indicated that (1) Victims in the end of the second semester were also those who were victimized by peers in the end of the first semester, (2) The victimization by peers effected on self-esteem in boys and girls, (3) The interaction effect of victimization and parent attachment on self-esteem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boys, and friendship on self-esteem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girls.

Key Words

또래에 의한 괴롭힘(victimization by peers), 자아존중감(self-esteem)
아버지에 대한 애착(attachment to father), 어머니에 대한 애착(attachment to mother),
우정(friendship)

* 1999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경원대학교 강사

***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언론매체들을 통해 보도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victimization by peers)은 그 피해 실태를 고려할 때, 조속히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연구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 아동의 10~20% 정도(한국교육개발원, 1998; Kochenderfer & Ladd, 1996)가 경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후기와 중학교 시기인 10~14세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9; Hoover, Oliver, & Hazler, 1992). 성별로는 남아가 여아보다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는 경향이 있었으며(양원경, 도현심, 1999; Boulton & Underwood, 1992; Olweus, 1991), 여아들은 간접적이고 미묘한 형태의 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되는 반면, 남아들은 직접적인 괴롭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Kochenderfer & Ladd, 1996; Olweus, 1991). 이처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라는 현상이 보도되면서, 국내에서는 가해 아동(이하, 가해아)을 신고, 처벌하는 기관을 세우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많은 사회적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1996년에서 1997년 사이에 잠시 감소되었다가, 그 후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9).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그 지속성으로 인해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국외 연구의 경우, 6개월 혹은 1년에 걸친 종단적 연구를 통해, 그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1년이 지난 후에도 유의하게 지속되며(Hodges & Perry, 1999), 소년들로 구성된 놀이집단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초기 청소년기의 소년들은 이후의 놀이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다(Schwartz, Dodge, Pettit & Bates, 1997). 또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특히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기(Erikson, 1959)의 자아존중감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의 심각성이 주목된다. 즉, 신체, 인지, 사회적으로 급격한 발달적 변화를 맞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며, 이러한 탐색적 질문의 답변은 자신을 평가하는 주위 사람들의 사회적 피드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며 또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청소년기에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은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정신 건강을 저해하고, 환경 적응 및 건전한 인성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는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초래하리라 가정된다. 국외의 경우,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아동(이하, 피해아)의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는 연구들(Olweus, 1978; Egan & Perry, 1998)이 보고되나, 국내의 경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그들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단기 종단적 방법을 이용하여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성을 갖는지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친구관계가 확대되고 많은 시간을 함께 어울려 지내게 되지만, 장래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나 정서적 지지를 부모로부터 얻길 원하는 등 여전히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모-자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으로 평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며, 이는 부모에 대한 애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기 부모에 대한 애착은 신뢰감과 친밀감을 가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행동적인 면이 포함되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간의 관계로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함으로써 청소년은 또래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Armsden & Greenberg, 1987). 다시 말해, 부모와의 신뢰로운 관계는 또래로부터의 거부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손상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다(Patterson, Cohn, & Kao, 1989). 국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래에 의한 괴롭힘 경험과 가족관계 등에 관해 상담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에서도, 가정은 따돌림에 대한 취약성을 갖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따돌림 극복에 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지지원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청소년이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경우, 또래에 의한 괴롭힘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손상되는 것과 같은 또래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할 때 부모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도움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부모-자녀관계(애착관계)의 영향력을 직접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빈번히 나타나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애착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며, 본 연구에서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의 보호적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으로서 우정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청소년기 친구와의 우정관계를 강조한 Sullivan(1953)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음으로써 정서적 지원, 정보 등을 얻게 되는 등, 정서적 후원자로서의 친구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우정관계는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는 환경이 되며, 자아존중감의 정보적 원천으로 지지하고 대처하는 정서적·인지적 자원을 제공한다(Hartup, 1993). 그러나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우정의 기능은 보호적 기능으로, 몇몇 연구에서도 한 명 혹은 더 많은 지지적인 친구를 갖는 것이 아동을 또래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보고하였다(Bukowski, Sippola & Boivin, 1995; Hodges, Malone, & Perry, 1997; Kochenderfer & Ladd, 1996). 즉, 또래집단 내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있더라도,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책을 의논하며 도와주는 소수의 친한 친구나 친구들이 있다면 또래에 의한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 손상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몇몇 연구자들(Bukowski et al., 1995; Rizzo, 1989)은 한 명 혹은 더 많은 지지적인 친구를 갖는 것이 아동을 또래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아동은 누가 누구와 친구인지를 잘 알며(Cairns, Cairns, Neckerman, Gest, & Garipey, 1988), 공격적인 아동은 지지적이고 보호적인 친구가 없는 또래를 공격 대상으로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격적 아동은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친구로부터 보복이나 추방당할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친구가 없는 아동은 홀로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친구들이 있는 아동은 괴롭힘으로 인한 갈등과 위협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친구들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도 있다. Bukowski와 동료들(1995)

및 Malone과 Perry(1995)의 연구에 의해서도 친구가 없는 아동이 친구가 있는 아동보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관계의 보호적 기능에 관해 살펴본 Hodges와 동료들(1997) 역시 내/외현적 문제 및 신체적 허약성과 같은 아동의 행동적 문제는 친구의 수가 적고 친구가 보호적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만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심리·사회적 특성간의 관계는 친한 친구나 친구의 수에 의해 중재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즉, 아동이 친구와 우정관계를 나누고 있는 경우에는,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발달에서 커다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기 종단적으로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우정관계에 의해 중재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이상에서 살펴본 또래에 의한 괴롭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우정관계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성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에 더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는 연구(양원경, 도현심, 1998)가 보고된다. 또한 남학생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 여학생보다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발달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여학생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서 남학생보다 외로움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현심, 1998)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남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발달 변인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성별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관한 연구는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도록 만드는 과정과 상황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시키는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기 종단적 연구를 통해 남녀청소년들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지속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간에 미치는 영향과, 이 양자간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우정관계의 중재적 역할을 살펴보려고 한다.

2. 연구문제

1.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시기 1과 시기 2간에 안정적으로 나타나는가?
2. 시기 1에서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시기 2에서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시기 1에서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시기 2에서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우정관계에 의해 중재되는가?
 - 1) 시기 1에서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시기 2에서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에 대한 애착에 의해 중재되는가?
 - 2) 시기 1에서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시기 2에서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우정관계에 의해 중재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시기 1(1998년 7월)과 시기 2(1998년 12월)에 모두 응답한 경기도 소재의 남녀공학인 H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 354명(남학생: 169명, 여학생: 185명)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로 중학생을 선정한 것은, 이 시기에 또래관계가 생활의 주를 차지하며,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2. 조사도구

1) 또래에 의한 괴롭힘 척도

본 연구에서는 Perry와 동료들(1988)이 사용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Wiggins와 Winder(1961)가 개발한 Peer Nomination Inventory(PNI)를 토대로 수정된 것으로서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에 의해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다른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한다,” “나는 다른 아이들로부터 비웃는 식의 별명을 자주 듣는다,”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맞거나 밀린다” 등을 들 수 있다. 자기보고용은 Likert식 4점 척도로서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중 선택하게 되어 있다.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점수는 총 7~28점에 이르게 된다.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85이었다. 본 척도의 타당도는 아동학 전공 교수와 석사과정 대학원생 등 5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구하였다.

또래보고용은 각 문항에 대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동성 급우의 이름 아래 모두 표시(V) 하도록 되어 있다. 각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점수는 각 문항에 대해 평가한 급우들 가운데 그 아동이 그 문항에 해당된다고 표시한 또래수의 백분율을 계산한 후, 각 문항의 백분율을 합하여 산출하며 총 0~700점에 이른다.

2) 애착 척도

애착의 측정은 Armsden(1991)의 IPPA-R (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청년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의 개정본이다. IPPA와 달리 IPPA-R은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하,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하, 어머니 애착)을 각각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래 IPPA-R은 Likert식 5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화하여 사용하였다. 본래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IPPA-R은 예비조사 후 신뢰도가 낮은 5 문항이 제외되어 총 20문항으로 본조 사용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Cronbach's α 에 의한 애착 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 애착은 .79이었으며, 어머니 애착은 .74였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 척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척도의 타당도 검증은 아동학 전공 교수와 석사과정 대학원생 등 5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구하였다.

애착점수는 Armsden(1991)에 근거하여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을 역채점(reverse scoring)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3) 우정관계 척도

우정관계는 Ladd와 동료들(1997)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친구의 수와 가장 친한 친구 유무의 두 가지에 의해 측정하였다. 먼저, 각 아동에게 친한 동성의 급우들의 이름을 세 명까지 적도록 한 후, 이들 중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친구수는 아동들이 서로 친한 친구로 적은 경우의 숫자로서 각 아동은 0-3명의 친구를 가지게 되며, 가장 친한 친구의 유무 역시 친구 수와 마찬가지로 계산하여 서로 가장 친한 친구라고 표시한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이 된다.

4)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5)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섯 가지 하위영역(사회적 수용도, 운동능력, 신체용모, 학업능력, 행동품행)에서의 자아지각과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지각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평가한다. 특히,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능력 평가가 아니며, 비록 다섯 가지 하위영역의 점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나 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별개의 자아평가 구성요소이다. 사회적 수용도는 또래들이 자신을 쉽게 좋아하는지, 인기가 있는지,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아동들의 지각을 측정한다. 학업 유능성은 학교 공부를 잘하는지, 영리한지, 학업수행을 잘한다는 느낌이 드는지 등에 대해, 운동능력은 처음 해보는 운동도 잘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지 등에 관해 측정한다. 신체용모는 자신의 신체용모에 대해 만족하는 지에 관한 지각을, 행동품행은 옳은 행동을 하는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느끼는지를 측정한다.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아동들이 그들 자신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지와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만족하

는 정도를 측정한다.

Self-Perception Profile의 각 진술문은 “어떤 아이들은”과 “다른 아이들은”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정답이나 바람직한 답이 있음을 암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동은 두 범주의 묘사 중 자기 자신과 보다 비슷해 보이는 어느 한쪽을 먼저 선택한 후에 그 내용이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나는 매우 그렇다”와 “나는 약간 그렇다” 중에서 한 곳에 표시를 하면 된다. 답안배열의 방식은 일정한 패턴 없이 긍정적인 쪽과 부정적인 쪽이 지면의 왼편과 오른편에 무선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지각을 묻는 문항을 예로 들면, 사회적으로 더 적절하고 유능하다는 내용에 대해 ‘자신과 매우 비슷’할 때는 4점을, ‘자신과 약간 비슷’할 때는 3점을 주지만, 사회적으로 덜 적절하고 유능하지 못하다는 내용이 ‘자신과 비슷’할 때는 2점을, 그리고 ‘자신과 정말 비슷’할 때는 1점을 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자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예비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구성된 본조사용 척도는 사회적 수용도, 운동능력, 신체용모, 학업능력 및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지각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총 32문항의 질문지이다.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사회적 수용도 .82, 운동능력 .88, 신체용모 .79, 학업능력 .80, 행동품행 .61, 전반적 자아가치감 .76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시기 1(1998년 7월)과 시기 2(1998년 12월)에 실시한 두 번의 본조사는 모두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훈련된 조사원들이 각 교실에 들어가 질문지를 직접 조사한 다음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시기 1에서는 배부된 441부의 질문지 가운데 부적절한 응답이 있는 질문지(54부)를 제외하여 387부

의 질문지를 얻었다. 시기 2에서는 배부된 441부의 질문지 가운데 부적절한 응답이 있는 경우(43부), 결석 혹은 전학 등의 사유로 불참한 경우(4부), 그리고 새로 전학 온 경우(2부)를 제외하고, 응답자의 이름을 확인하여 시기 1과 일치하는 총 354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 t 검증, 상관관

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증 혹은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예비분석

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 변인들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모두에서 유의한 성차를 나타내었다. 자기보고($t=4.66, p<.001$)와 또래보고($t=2.73, p<.01$)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어머니 애착에서만 성차가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보였다($t=2.21, p<.05$). 우정관계에서도 유의한 성차를 나타내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수가 많았고($t=-2.81, p<.01$),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4.72, p<.05$).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들 가운데에서는 사회적 수용도와 행동품행 요인만을 제외하고 유의한 성차를 보였다. 즉, 운동능력($t=4.30, p<.001$), 신체용모($t=4.85, p<.001$), 학업능력($t=1.99, p<.05$), 그리고 전반적 자아가치감($t=2.97, p<.01$)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

이상을 종합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어머니 애착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에 기초하여 이후의 분석에서는 남녀 학생의 자료를 따로 분석하여 성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각 시기 별(시기 1과 시기 2) 및 성별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시기 1에서는 전반적으로 남녀학생 모두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아버지/어머니 애착 및 우정관계와 자아존중감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아버지/어머니 애착간에는 남학생의 경우에만 부적인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우정관계간에는 전반적으로 부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한편, 시기 2의 경우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시기 1과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었으나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시기 1 및 시기 2의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유사하여,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적게 경험할수록, 아버지, 어머니 애착이 높을수록, 그리고 친구수가 많고 친한 친구가 있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적게 받을수록, 아버지, 어머니 애착이 높았고, 친구수가 많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지속성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기 1과 시기 2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 또래보고)경험간의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5>). 먼저, 자기보고 및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서 남학생(자기보고: $r=.58$, $p<.001$ / 또래보고: $r=.81$, $p<.001$)과 여학생(자기보고: $r=.57$, $p<.001$ / 또래보고: $r=.88$, $p<.001$) 모두 양 시기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시기 1에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한 남녀 학생들은 시기 2에서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 외의 각 변인들도 전반적으로 시기 1과 시기 2간에 지속성이 나타났다.

3.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시기 1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시기 2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시기 1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시기 2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먼저 시기 1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시기 2의 사회적 수용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자기보고($\beta=-.37$, $p<.001$)와 또래보고($\beta=-.24$, $p<.01$) 모두 사회적 수용도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사회적 수용도 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17%로 또래보고(6%)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도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자기보고($\beta=-.38$, $p<.001$) 및 또래보고($\beta=-.42$, $p<.001$) 모두 사회적 수용도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또래보고(17%)가 자기보고(15%)의 경우보다 설명력이 다

소 더 크게 나타났다.

시기 1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시기 2의 운동능력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자기보고($\beta=-.02$, $p<.001$)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운동능력 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10%였다. 여학생의 경우,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모두 운동능력 요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시기 1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시기 2의 신체용모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자기보고($\beta=-.32$, $p<.001$)만이 신체용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설명력은 10%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도 자기보고($\beta=-.20$, $p<.01$)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만이 신체용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설명력은 4%였다.

시기 1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시기 2의 학업능력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의 경우, 자기보고($\beta=-.27$, $p<.001$)의 경우만이 학업능력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학업능력 요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8%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자기보고($\beta=-.22$, $p<.01$)와 또래보고($\beta=-.23$, $p<.001$) 모두 학업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요인 가운데 또래보고의 설명력은 6%로 자기보고의 설명력(5%)과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기 1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시기 2의 행동품행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학생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의 경우, 자기보고($\beta=-.33$, $p<.001$)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만이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11%였다. 여학생의 경우도 자기보고($\beta = -.17$, $p < .05$)만이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3%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기 1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시기 2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및 평가자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즉, 남학생의 경우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행동품행 요인을 제외한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요인들에 영향을 미쳐,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경험한다고 스스로 보고한 남학생들은 사회적 수용도, 운동능력, 신체용모,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지각 및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았다. 또래보고의 경우는, 사회적 수용도 요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남학생은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지각이 낮았다. 한편, 여학생도 자기보고 방식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또래보고 방식에 의한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행동품행 및 운동능력 요인을 제외한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요인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경험

한다고 스스로 보고한 여학생은 사회적 수용도, 신체용모,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지각 및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았다.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는, 사회적 수용도와 학업능력 요인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요약해 보면, 남녀 학생 모두 자기보고 방식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또래보고에 의한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가운데 사회적 수용도 요인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4.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우정관계의 중재적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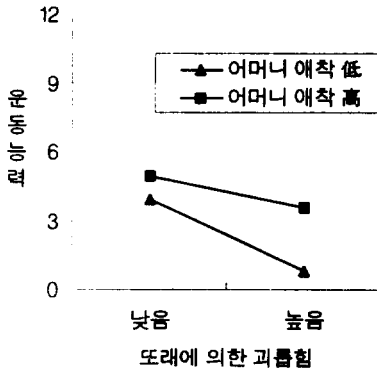
1)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의 중재적 역할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에 대한 애착에 의해 중재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부·모에 대한 애착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남녀 학생 각각 시기 1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또래보고), 시기 1의 부·모에 대한

<표 1> 남학생의 운동능력에 대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과 어머니 애착의 중다회귀분석(N=169)

독립변인	B	β	R ²	F
또래에 의한 괴롭힘 (자기보고) (A)	.31	.07		
어머니 애착 (B)	.17	.51*		
A × B	-.00	-.47*		
			.14	9.17***

* $p < .05$ *** $p < .001$



<그림 1> 남학생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어머니 애착이 운동능력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애착(아버지/어머니), 그리고 이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시기 2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에게서만 두 가지 경우의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시기 1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과 어머니 애착은 시기 2의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운동능력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었다($\beta = -.47, p < .05$)(<표 1>). <그림 1>에서와 같이 어머니 애착이 높은 집단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 경험의 정도와 상관없이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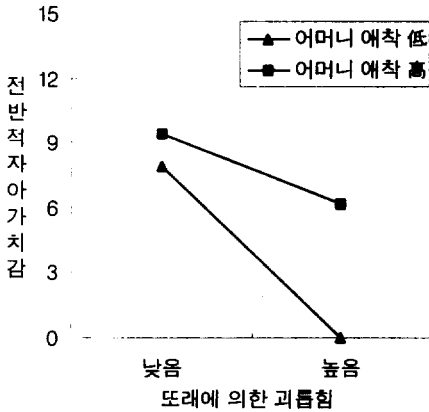
애착이 낮은 집단보다 운동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 애착이 낮은 집단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많이 받을수록 운동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 낮았고,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적게 받을수록 운동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 높았다. 즉, 남학생이 경험하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이 운동능력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 애착의 정도에 따라 중재되었다. 또한, 주 효과로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은 운동능력 요인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어머니 애착은 운동능력 요인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beta = .51, p < .05$), 어머니 애착이 높은 경우 운동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과 어머니 애착은 남학생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에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었다($\beta = -.55, p < .05$)(<표 2>). <그림 2>에서와 같이, 어머니 애착이 높은 집단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험 정도와 관계없이, 어머니 애착이 낮은 집단보다 전반적 자아가치감 점수가 높았다. 반면, 어머니 애착이 낮은 집단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많이 받을수록 전반적 자아가치감 점수가 낮았으며,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적게 받을수록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높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경험하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이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 애

<표 2> 남학생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대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과 어머니 애착의 중다회귀분석(N=169)

독립변인	B	β	R ²	F
또래에 의한 괴롭힘 (자기보고) (A)	.45	.18		
어머니 애착 (B)	.25	.63**		
A × B	-.01	-.55*	.16	10.44***

*p>.05 **p<.01 ***p<.001



<그림 2> 남학생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어머니 애착이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착 정도에 따라 중재되었다. 또한, 주효과로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은 전반적 자아가치감 요인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어머니 애착과 전반적 자아가치감 요인간에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beta=.63, p<.01$), 어머니 애착이 높을수록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부·모에 대한 애착간의 상호작용에서 남녀 학생간의 성차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어머니 애착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높은 영향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수용도, 신체용모, 학업능력, 및 행동품행에 대해서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과 부·모에 대한 애착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과 어떠한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2)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우정관계의 중재적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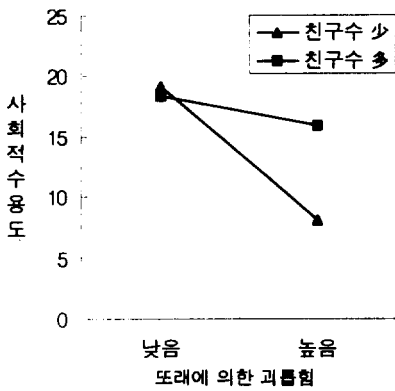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우정관계에 의해 중재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우정관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남녀 학생 각각 시기 1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또래보고), 우정관계(가장 친한 친구 유무/친구수), 그리고 이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시기 2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에게서만 두 가지 경우의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과 친구수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수용도에 유

<표 3> 여학생의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과 친구수의 중다회귀분석(N=185)

독립변인	B	β	R ²	F
또래에 의한 괴롭힘 (자기보고) (A)	-.53	-.55***		
친구수 (B)	-1.25	-.39		
A × B	.14	.51*		
			.18	13.00***

*p<.05 ***p<.001



<그림 3> 여학생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친구수가 사회적 수용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었다($\beta=0.51, p<0.05$)(<표 3>). <그림 3>와 같이, 친구수가 많은 집단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 경험 정도와 상관 없이 친구수가 적은 집단보다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지각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수가 적은 집단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지각이 낮았고,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적게 받을수록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지각이 높았다. 즉, 여학생이 경험하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이 사회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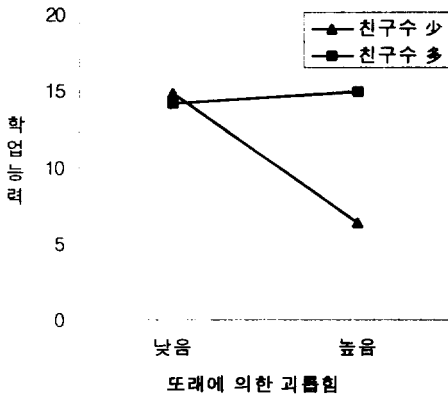
용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친구수에 따라 중재되었다. 또한, 주효과로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은 사회적 수용도 요인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beta=-0.55, p<0.001$),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 수용도 요인이 낮았으나, 친구수와 사회적 수용도 요인간에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과 친구수는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학업능력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었다($\beta=0.47, p<0.05$)(<표 4>).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친구수가 많은 집단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 경험 정도에 관계없이 친구수가 적은 집단보다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수가 적은 집단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많이 받을수록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 낮았고,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적게 받을수록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 높았다. 즉, 여학생이 경험하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이 학업능력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친구수에 따라 중재되었다. 또한, 주효과로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과 학업능력 요인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beta=-0.38, p<0.01$),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많이 받을수록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 높았으나, 친구수와 학업능력 요인간에는 유의한

<표 4> 여학생의 학업능력에 대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과 친구수의 중다회귀분석(N=185)

독립변인	B	β	R ²	F
또래에 의한 괴롭힘 (자기보고) (A)	-.40	-.38**		
친구수 (B)	-1.28	-.35		
A × B	.15	.47*		
			.08	5.42**

* $p<0.05$ ** $p<0.01$



<그림 4> 여학생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친구수가 학업능력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우정관계간의 상호작용에서 남녀 학생간의 성차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정관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높은 영향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여학생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과 친구수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운동능력, 신체용모,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 가치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친구수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남녀 학생의 친한 친구 유무의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빈번한 시기인 중학교 2학년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 종단적 연구방법을 통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지속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양자간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우정관계가 중재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지속성을 살펴본 결과, 1학기 후반(시기 1)에 자기보고 및 또래보고에 의해 평가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2학기 후반(시기 2)에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지속성을 1년간의 간격을 두고 검증한 연구결과(Hodges & Perry, 1999)를 비롯하여, 복종적인 청소년 초기의 남아들이 이후의 놀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연구결과(Schwartz et al., 1997)를 지지한다. 또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또래에 의한 괴롭힘

의 지속성을 확인한 연구들(Boulton, 1999; Ladd et al., 1997)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장기간 지속될 때 적응상의 문제가 더욱 가중된다는 주장(Ladd & Ladd, 1998)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피해아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을 환기시킨다.

둘째,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성별 및 평가자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스스로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경우, 행동품행 요인을 제외한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수용도, 운동능력, 신체용모 및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지각과 전반적 자아 가치감이 낮았으며, 또래보고에 의한 경우는 사회적 수용도 요인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학생도 자기보고 방식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또래보고 보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들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스스로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여학생은, 사회적 수용도, 신체용도 및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지각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았으나, 또래보고에 의한 경우는 사회적 수용도와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지각만이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때, 남녀 학생 모두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경험한 경우, 6개월 후의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특히 또래보고 보다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자아존중감의 여러 하위요인들 가운데, 사회적 수용도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봄과 가을 학기에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낮은 자아존중감을 초래했다는 Egan과 Perry(1998)의 단기 종단적 연구와 일치한다. 그 외에 종단적 자료를 이용한 결과는 아니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심리·사회적인 부적응간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아들은 우울감 및 불안의 증가, 자아존중감 저하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며(도현심, 1998; 양원경, 도현심, 1998; Alsaker, 1993; Boulton et al., 1978), 통제감 상실로 인해 심리적인 적응 문제도 겪게 된다(Taylor et al., 1983). 이와 같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관련이 되며, 특히 자신에 대한 평가적 신념이며, 주위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을 낮춘다는 결과는, 또래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킨다. 더구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을 낮춘다는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 경험이 지속될 때 부정적인 영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피해아에게 미칠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음을 암시

한다. 왜냐하면, 학교 및 학원 등 주위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대개 지속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렇게 계속되는 또래로부터의 괴롭힘은 피해아의 자아존중감에 더욱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가운데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가운데 사회적 수용도와 가장 관련이 깊었다는 연구결과(양원경, 도현심, 1998; Egan & Perry, 1998)와 일치한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험이 대인관계 측면인 또래관계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감안할 때 다른 요인보다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지각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된다. 이 외에,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평가자에 따른 차이는 이후에 제시될 연구문제와 관련되므로 추후에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에 대한 애착에 의해 증대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에게서만 두 가지 경우의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어머니 애착과 상호작용하여 운동능력에 대한 자아지각 및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남학생이 스스로 보고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험과 운동능력에 대한 자아지각 및 전반적 자아가치감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애착은 중재적 역할을 나타내었다. 어머니 애착이 높은 남학생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 경험의 정도와 관계없이 어머니 애착이 낮은 남학생보다 운동능력에 대한 자아지각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 애착이 낮은 남학생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운동능력에 대한 자아지각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았고,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적게 받을수록, 운동능력에 대한

자아지각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 애착이 높으면서 또래로부터 낮은 수준의 괴롭힘을 경험하는 남학생은 운동능력에 대한 자아지각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가장 높았다. 반면, 어머니 애착이 낮으면서 높은 수준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하는 남학생은 운동능력에 대한 자아지각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가장 낮았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부·모에 대한 애착에 의해 일부 요인에서 완화되었다는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시기에 부모-자녀관계가 여전히 중요함을 나타낸다. 즉, 부모와의 신뢰로운 관계가 또래관계 내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보호할 수 있다(Patterson & Bank, 1989). 또한 같은 맥락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외현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Scaramella, Conger, & Simons, 1999),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적, 적응적인 가정내에서 자란 아동은 또래관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게 되어, 심리적 복지감의 손상이 약화될 수 있다(Gauze et al., 1996).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험과 가족관계 등에 관해 상당한 자료를 분석한 국내의 연구(이규미 외, 1998)에서도 가정은 또래로부터의 괴롭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지지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이 강조된 바 있다. 이를 통해,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부정적인 심리적 발달간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증재 요인으로서 부모-자녀관계를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부모에 대한 애착에 의해 완화되지 못하는 요인의 수가 더 많이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는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경험 자체가 심리적 발달에 미칠 위험의 심각성을 재확인 시켜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부모에 대한 애착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나타난 성차는, 다음의 연구문제와 관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우정관계에 의해 증재되는 지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에게서만 두 가지의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친구수와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수용도 및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여학생이 스스로 보고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험이 사회적 수용도 및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친구수에 의해 증재되어, 친구수가 많은 여학생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 경험의 정도와 상관없이 친구수가 적은 여학생보다 더 높은 사회적 수용도 및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을 나타내었다. 반면, 친구수가 적은 여학생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사회적 수용도 및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 낮았고,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적게 받을수록, 사회적 수용도 및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수가 많으면서 또래로부터 낮은 수준의 괴롭힘을 경험하는 여학생은 가장 높은 사회적 수용도 및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을 나타내었다. 친구수가 적으면서 높은 수준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하는 여학생은 사회적 수용도 및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 가장 낮았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친구수에 의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 시기의 우정관계, 특히 여학생 사이의 우정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지하고 보호해 주는 친구가 있을 때 만성적인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Hodge & Perry, 1999)와 일치한다. 또한, 공격적인 아동은 지지적이고 보호적인 친구가 없는 또래를 공격할 대상으로 더 선호한다는 연구(Cairns et al., 1988) 및 내·외현적 문제를 가진 아동은 친구의 수가 적고 친구가 보호적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Hodges et al., 1997)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친구와 우정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공격적인 아동에게 보복의 두려움을 갖게 할 수 있으며, 괴롭힘으로 인한 갈등과 위협을 다룰 방법에 관해 친구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어, 또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덜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과 달리,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우정관계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단 두 가지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에서 발견된 점에 근거해 볼 때,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우정관계의 중재효과가 성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관련된 연구에서의 이러한 요인들에 따른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먼저, 남학생과 여학생에게서 각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우정관계가 중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즉, 또래관계에서의 성차와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다. 즉,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인 경우, 대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신체·심리적인 발달이 다소 뒤지므로(Jeanne & Edward, 1990), 여학생들에 비해 부모에게 좀더 의존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또래관계보다 부모-자녀관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조숙하여 부모로부터 보다 빨리 독립하며, 친구와 어울려 지

내는 시간이 많아 또래관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Boulton, 1999), 부모-자녀관계는 다소 약화될 수 있다. 즉, 여학생에게는 또래관계가 부모-자녀관계에 비해 보다 더 중시될 수 있으며, 따라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할 때, 친구들마저 없다면 자아존중감의 상실 및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욱 심하게 경험할 수 있다(도현심, 1998). 다시말해, 남학생은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이라면, 그리고 여학생은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경험할지라도 친구들이 많다면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덜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양자간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우정관계의 중재적 역할은 평가자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르게 나타나, 자기보고의 경우가 또래보고의 경우에 비해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측정시 또래보고 및 자기보고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심리·사회적 발달과의 관계를 조사한 최근의 국내 연구결과들(도현심, 1998; 양원경, 도현심, 1998; 신재은, 1999)과 일치하고 있다. 즉, 이들 연구에서도 자기보고 방식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 외로움, 애착발달 등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 및 부·모에 대한 애착, 우정관계 역시 자기보고에 의해 평가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평가자로 인해 영향력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또래보고 방식의 제한점에 기인할 수 있다. 즉,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측정시 PNI와 같은 또래보고를 사용하는 것은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잇점이 있는 반면, 동성의 또래 가운데 괴롭힘을 경험하는 급우를 표시하게 하는 것과 같이 또래의 부정적 행동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실제보다 관대하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평가에 관해, Olweus(1991)

도 또래보고 방식 보다 자기보고에 의한 측정이 더 유용함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제한점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의 척도로서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 대신 애착의 정도를 평가하는 애착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포괄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애착의 질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부모의 자녀양육행동 및 사회화와 같은 변인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또래관계의 척도로서 우정관계, 즉 가장 친한 친구 유무와 친구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친구가 있다 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인지, 친구 역시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인지 등과 같은 친구의 특성도 함께 고려한다면, 우정관계의 영향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는 한 학기라는 짧은 기간에 걸쳐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지속성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오랜 기간에 걸친 지속성을 비롯하여 장기간에 걸쳐 괴롭힘 당한 것으로 인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영향력을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피해아에게 미칠 장기적인 발달 및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나 해결책들을 탐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영향 변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피해아의 사회적 기술 증진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대인관계에서 상대방과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여 반응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등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상담을 실시하여,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할 소지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우정관계의 중재 효과가 성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났으므로, 또래에 의한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아의 성별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남학생은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감 향상, 의사소통 증진 등 부모-자녀관계 측면, 여학생은 우정관계 형성을 위해 또래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동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또래관계 측면에 보다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본용(1998). 청소년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용태, 박한샘(1998).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윤경(1997). 인기, 무시 배척집단의 사회기술 및 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논문.
- 도현심(1998).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가정학회지, 36(12), 1-9.
- 도현심(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 33-49.
- 도현심(2000). 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307-322.
-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박성연 역(1991). *인간발달 I. 교학사*.
- 백경임, 서동인(1993).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친구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5, 45-61.
-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1997). 친구관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97-7*.
- 신재은(1999). 청소년의 애착 및 우정관계와 또래괴롭힘간의 관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원경, 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23-238.
- 이규미, 문형춘, 홍혜영(1998).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왕따" 현상.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 접근,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개원 1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 이숙, 이춘아(1998).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67-77.
- 이시형(1998).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결.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개원 1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 조해정(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또 하나의 문화.
- 천선아(1999). 왕따의 모든 것, 집단 따돌림, 이제 사라져야 한다. 어린이 동산, 3월호.
- 청소년대화의광장(1997). 상담사례연구집.
- 청소년 폭력예방재단(1999). 집단따돌림("왕따")의 실태와 대처방안.
- 최보가, 임지영(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한국교육개발원(1999).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 Alsaker, L.S., & West, S.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oivin & Hymel (1997). Peer experiences and social self-perceptions: A sequential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3(1), 135-145.
- Boivin, M., & Hymel, S. & Bukowski, W.M.(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765-785.
- Boulton, M. J.(1999). Concurrent and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children's playground behavior and social preference, victimization, and bullying. *Child Development*, 70(4), 944-954.
- Boulton, M. J.,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Buhrmester, D.,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pp. 15-45). New York : Wiley.
- Bukowski, W. M., Sippola, L. K., & Boivin, M. (1995, March). Friendship protects "at risk" children from victimization by peers. In J. M. Price(Chair), *The role of friendship in children's developmental risk and resilience: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Gest, S. D., & Garipey, J.(1988). Social networks and aggressive behavior: Peer support or peer reje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15-823.
- Coie, J. D., Do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ren*(pp.17-5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oley, C. H.(199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 Crick, N. R. & Bigbee, M. A. (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37-347.
- Crick, N. R., & Casas, J. F., Ku,hyon-chin(1999). Relational and physical forms of peer victimizat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376-385.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6).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Dodge, K. A. (1986).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M. Perlmutter(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pp. 77-126). Hillsdale, NJ: Erlbaum.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pp. 77-10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innegan, R. A., Hodges, E. V. E., & Perry, D. G. (1996). Preoccupied and avoidant coping during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7*, 1318-1328.
- Gottfried, A. E. & Bathurst, K. (1995). Maternal and dual-earner employment status and parenting. *Handbook of parenting*, vol 12, March Bornstein.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 275-385). New York: Wiley.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Hartup, W. W. (1993). Adolescents and their friends. In B. Laursen(Ed.), *Close friendships in adolescence*(pp.3-22). San Francisco: Jossey-Bass.
- Hartup, W. W., & Stevens, N. (1997). Friendships and adaption in the life course. *Psychological Bulletin, 121*, 355-370.
- Hazler, R. J., Hoover, J. H., & Oliver, R. (1991). Student perceptions of victimization by bullies in school. *Journal of Humanistic Education and Development, 29*, 143-150.
- Hill, J. P. (1980). The family: In M. Johnson (Ed.), *Toward adolescence: The middle school years*. Seventy-nin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pp. 32-5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dges, E. V. E., Malone, M. J.,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32-1039.
- Hodges, E. V. E. & Perry, D. G.(1999). Personal

- and interperson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by pe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4), 677-685.
- Hymel, S. (1986). Interpretations of peer behavior: Affective bia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431-445.
-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6, July). Linkages between parent-child interactions at home and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in school. In P. K. Smith, W. Craig, & E. Hennessy(Chair), *Parenting and school bullying*.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SSBD, Berne, Switzerland.
- Ladd, G. W. (1989). Toward a further understanding of peer relationships and their contributions to child development. In T. Berndt & G.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pp. 1-11). New York: Wiley.
- Ladd, G. W., & Kochenderfer, B. J.(1998).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Correlates of peer victimization in kindergart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450-1458.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7). Classroom peer acce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Distinct relational systems that contri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8, 1181-1197.
- Ladd, G. W., & Ladd, B. K. (1998).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Correlates of peer victimization in kindergart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50-1458.
- Malone, M. J., & Perry, D. G. (1995, March). *Features of aggressive and victimized children's friendships and affiliative preferences*.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Medinnus, G. R. (1965). Adolescents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 of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150-154.
- Olweus, D. (1973). *Hackkycklingar och oversittare: Forskning om skolmobbing*. Stockholm: Almqvist & Wiksell.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Wiley).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 Olweus, D. (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 (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pp. 57-76). John Wiley & Sons, Ltd.
-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pler & K. H.
- Olweus, D. (1992). *Bullying at school-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Book manuscript.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411-45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Patterson, G. R., Cohn, & Kao (1989).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Perry, d. G., Perry, L. C., & Kennedy, E. (1992).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C. U. Shantz & W.W. Hartup(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 development*(pp. 301-32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rry, D. G., Williard, J. C., & Perry, L. C. (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 Rizzo, T. A. (1989). *Friendship development among children in school*. Norwood, NJ: Ablex.
- Rubin, K.H. & Asendorpf. J.B.(1993).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WJ: Lawrence Erlbaum.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4), 665-675.
- Smith, P. K. (1991). The silent nightmare: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hool peer groups. *The Psychologist: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4*, 243-248.
- Sullivan, H.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Tashakori, A. (1993). Gender, ethnicity, and the structure of self-esteem: An attitude theory approac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4), 479-488.
- Troy, M., & Sroufe, L. A. (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hist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6-172.
- Wiggins, J. S., & Winder, C. L. (1961). The Peer Nomination Inventory: An empirically derived sociometric measure of adjustment in preadolescent boys. *Psychological Reports, 9*, 643-677.
- Wylie, R. C.(1979). *the self-concept: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Vol. 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Youngblade, L. M., & Belsky, J. (1992). Parent-child antecedents of 5-year-olds' close friendships: A longitudi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00-713.